

보도자료



보도 희망일	즉시/2022.10.21.(금)
문의	서울대학교 국제스포츠행정가양성사업단
	담당자: 이요한 / 전화: 880-2984 / 이메일: yohan410@snu.ac.kr

서울대 드림투게더마스터, 2024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 브레이킹 대회 관람

- 개발도상국 차세대 스포츠 행정가, 2022 WDSF 세계 브레이킹 선수권대회 견학

- 서울대학교 국제스포츠행정가양성사업단(단장: 강준호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) 드림투게더마스터(Dream Together Master, DTM) 재학생 21명(개도국 학생:19명, 한국 학생:2명)은 2022년 10월 22일(토)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개최되는 2022 WDSF 세계 브레이킹 선수권대회 결승을 관람할 예정이다.
- 재학생들은 DTM 과정에 지원하게 된 주요한 계기 중 하나로 한국 문화를 손꼽는다. 물론 2022년 기준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스포츠 학과 관련 분야에서 13위를 기록한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에서 수학해 보고 싶은 것이 DTM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였지만, 드라마 ‘오징어 게임’, 영화 ‘미나리’, 방탄소년단(BTS)의 K-pop, 한국 음식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문화를 실제 한국에서 경험하며 공부할 수 있다는 점 역시 DTM을 선택하게 된 주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.
-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견학을 시작으로 올해 11번째 비교과 활동인 이번 견학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관심은 국가대표 K-pop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인 댄스, 그리고 그중 한 장르인 브레이킹을 포함한 한국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대변한다. 특히 브레이킹이 2024 파리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수업시간에 배우게 될 ‘올림픽 제도와 국제 스포츠 관계(Olympic System and International Relations)’ 와도 연계하여 특정 종목이 올림픽 공식 종목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현장을 먼저 경험하게 된다.

- 서울대학교 국제스포츠행정가양성사업단 강준호 단장은 “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비교과 활동의 주요한 목적이다.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 견학은 올림픽 제도와 종목 간의 관계를 목도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며 “다양한 문화권, 국가 출신으로 구성된 DTM 재학생들이 수학 기간 동안 많은 종목과 시설, 이벤트를 경험하여 본국으로 돌아가 이 경험들을 자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 고 말했다.

-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국제스포츠행정가양성사업단이 운영 중인 드림투게더 마스터(Dream Together Master, DTM)는 개발도상국의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차세대 스포츠 행정가를 양성하고, 글로벌스포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스포츠 개발협력 사업 중 하나다. 매년 아시아, 아프리카, 오세아니아, 동유럽, 중남미 국가의 차세대 스포츠행정가 20여명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서울대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석사과정에서 교육을 받는다.



서울대 드림투게더마스터 재학생 스포츠 현장 견학 (광명 스피돔)